2022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영어과 교과서

임성은
정자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군 적용을 시작으로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영어과 교과 역량 중 영어 의사소통 역량에 편중되어 연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을 고려한 성취기준이 추가 개발되었다(온정덕, 2021).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교과용 도서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교수·학습자료와 학생의 학습 활동 형태로 구현하여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기능을 해왔다. 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교과서는 학습자의 사고력 증진과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과 또는 이후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교사가 학습자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도록 한다(박창언 외, 2021). 학습자료로서의 교과용 도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되므로, 이에 2022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구성과 내용, 교수학습과 평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2022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한다는 총론의 개정 방향을 반영하고, 국가·사회적 요구 및 영어 교과의 학문적 동향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초·중학교 영어는 영어 교과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영어는 보다 심화된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직업을 고려한 영어교육이 주요 목표가 되도록 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영어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의 언어'로 규정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이 추구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지향점인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등을 반영하였고, 기후변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함양 등을 연계 진술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국가·사회적 요구, 미래 사회 변화, 학문적 체계,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총괄 목표로 상정하고, 협력적 소통 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의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총 6개의 교과 세부 목표를 진술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을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의 2개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이해 영역에서 학습자는 정보를 취득(reception)하기 위한 목적하에 다양한 방식의 언어 입력(구두, 문자, 동영상 등)을 수집, 처리, 활용하게 되고, 표현 영역에서는 자기 생각, 느낌, 의견 등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기능하는 한편, 두 영역의 결합한 형태로 영어 사용자 간 상호작용도 가능하도록 이해와 표현 영역 간 통합을 장려한다.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3개의 진술 문으로 진술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세 가지 범주(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구성하여 제시되었다. '지식·이해'는 언어와 맥락의 2개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언어'는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으로 언어 재료인 별표 자료(소재,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어휘, 언어 형식), 글이나 담화의 유형 등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맥락'은 영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주제(영어 사용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범주화한 것)와 문화 내용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 '과정·기능'에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수행 기능을 보다 정교화하고 학교급별로 위계를 고려하여 구체화하여 영어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과 강조되어야 할 언어 기능별 전략을 일부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가치·태도'는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학생이 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정의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영어 학습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는 가치나 태도를 학교급 및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일부 교과 역량에 편중되지 않게 모든 영어 교과 역량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못했던 정의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학습 전략 및 매체 활용 관련 성취기준 등이 추가되었다. 학교급 간 연계와 위계가 강화되도록 학년군별 성취기준의 수를 조정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였다. 또한, 영어 교과 목표 및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의 수준을 재설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기초 문해력 및 학년군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읽기,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이 보강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네 언어 기능의 영역 간 비중 및 학생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개선하였다(임찬빈 외, 2022).

3.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편찬 방향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우리 교육은 이제 교과 지식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고 교사와 동료, 매체, 교과 지식이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이다. 이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하고, 국가·사회적 요구와 영어 교과의 학문적 동향을 고려하여, 교과서가 그에 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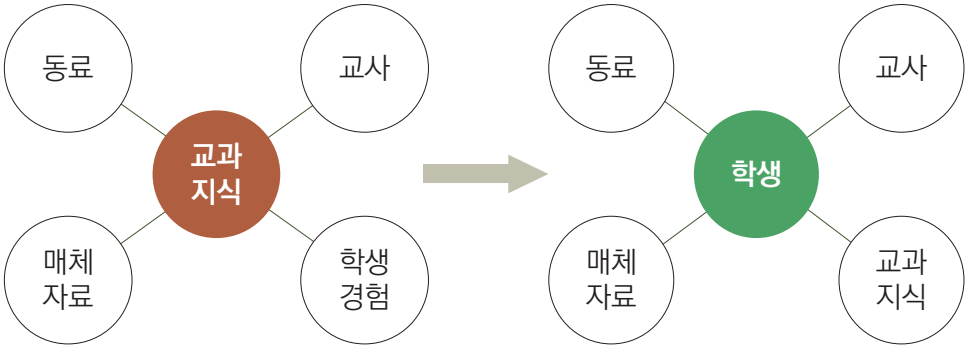

그림 1 —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변화

가. 구성 체제

1)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이 통합된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을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의 2개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이해 영역에서 학습자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하에 다양한 방식의 언어 입력(구두, 문자, 동영상 등)을 수집, 처리, 활용하게 되고, 표현 영역에서는 자기 생각, 느낌, 의견 등을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이다. 다음 [그림 2]와 같이,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기능하는 한편, 두 영역의 결합한 형태로 영어 사용자 간 상호작용도 가능하도록 이해와 표현 영역 간 통합을 장려한다(임찬빈 외, 2022).

그림 2 — 영어과 역량 및 영역 구성

사실,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총괄 목표로 삼고, 학생들이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행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분절적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네 가지 언어 기능이 동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실제 맥락과 동떨어진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게 되거나,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교사가 다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이해와 표현 영역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해주길 기대한다. 변화된 교육 환경의 현실과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의 동시 학습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언어 기능의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적용 시 학습자의 듣기와 읽기 능력을 균형적으로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해 영역의 듣기와 읽기를 연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말하거나 쓰기, 질문하며 답하기 등의 활동을 활용하여 이해 영역 활동이 자연스럽게 표현 영역 활동에 연결되도록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영01-06] 자기 주변 주제에 관한 담화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성취기준은 담화의 내용을 듣거나 읽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대화나 담화를 듣기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텍스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9영02-07] 친숙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내용을 요약한다.'와 연계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독립된 분절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하기, 듣고 쓰기, 읽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듣고 읽고 쓰기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영역으로 듣기와 읽기 외에 '보기(viewing)'를, 표현 영역에는 말하기와 쓰기 외에 '제시하기(presenting)'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듣기나 읽기의 단일 모드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지만, 뉴스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보면서 정보를 얻는 경우와 같이 읽기, 듣기, 보기(viewing)가 결합하는 방식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이해와 표현 영역의 설정을 네 가지 기능들의 단순히 물리적으로 묶거나 통합한

것과는 다름을 명시하고 있다. 이해 영역을 예로 들면 듣기 기능과 읽기 기능은 그 자체가 교육 목표가 아니라 정보의 이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학생들은 과제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듣기, 읽기, 보기 등을 학습하고 사용한다. 표현 영역 역시 말하기, 쓰기 기능의 함양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기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해와 표현 영역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두 영역이 결합하여 화자 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이해와 표현이 동시에 일어난다(임찬빈, 2022). 따라서 기존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체계에서 기능 간 통합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새 교과서에서도 이해와 표현 영역 간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지원하는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자율화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은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각론에 제시된 교과 교육과정을 재료로 하여 그 내용 혹은 배우는 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특색, 학교의 여건 및 상황, 학생의 흥미와 관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교과 내, 교과 간 연계 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교과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 교과서가 든든한 도움 자료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 교과서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 체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교과서를 심사·검토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획일적인 단원 구성 등으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교과서가 없어,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출판사별 단원 구성 체제가 매우 유사하다. 듣기 활동을 시작으로 말하기, 본문 읽기, 문법, 쓰기, 단원 평가, 프로젝트 등의 활동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결국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저명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채택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교과서 출판사별로 특색 있게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교수·학습 활동들을 중심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서가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즉,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요구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과 세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는 교과서 단원 및 내용의 재구성, 교과 내 통합, 교과 간 통합 등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할 수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학년)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진로연계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에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시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진로연계 교육이나 학교 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교과 간 통합이다. 그러나 동일 학년의 교과 간 주제가 통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학년에 관련 주제가 배치되어 있어 통합하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주제 중심의 교과 간 통합이 유연하도록 교과서 구성 시 동일 학년 내에서 타 교과와의 관련성도 고려한다면 교사의 교사 교육과정 실천을 돕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나. 내용

1)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기초한 활동 중심 주제 통합보다는 교과 내 영역과 여러 교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15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교과의 내용 요소는 친숙한 주제, 줄거리나 요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과 간 통합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과 중 하나이다. 이에 영어과 주제와 타 교과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사고와 경험이 확장되도록 돕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특히,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적용, 실천하도록 하는 '삶과 연계한 학습'을 강조한다. 나아가, 학

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교육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영어과 교육 내용의 소재 목록으로서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의 개념 정의와 내용 체계 안을 반영하여 〈표 1〉에서와 같이 소재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개인·학교·사회 생활, 문화 등 외에 생태전환, 민주시민, 디지털·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표 1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소재

연번	범주	세부 내용
1	개인생활 관련	– 취미, 오락, 여행, 운동, 쇼핑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 보건, 위생, 영양 등 개인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 – 생일, 관심사, 생활 방식 등 개인 일상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 관련	– 의복, 음식, 주거 등의 내용 – 명절, 가족 행사, 집안일 등 가정 일상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 관련	– 다양한 교육 내용 및 방법, 학교 활동, 교우 관계, 진로, 진학 등 학교 일상에 관한 내용
4	사회생활 관련	– 일, 노동, 직업윤리 등 근로에 관한 내용 – 서신 왕래,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활동, 면대면 대화 등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 회의, 지역 행사, 졸업, 결혼, 장례식 등 사회적 행사에 관한 내용
5	문화 관련	– 동일 문화권 내의 다른 세대, 성별 간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다양한 문화권의 관습, 규범, 가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 세계 문화의 의식주, 명절과 축제, 종교, 언어, 문학, 음악, 예술, 대중문화, 여행 및 관광지, 건축물, 전통, 지리, 역사, 인물, 스포츠, 관혼상제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 –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교류, 협력 등에 관한 내용
6	민주시민 관련	–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정의, 책임감 등의 인성에 관한 내용 – 인권, 양성평등, 글로벌 에티켓, 평화 등의 민주시민 의식 및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비판적 사고의 성찰,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 결정 및 갈등 해결에 관한 내용 – 가난 및 기아 해결,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자원과 에너지 문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의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내용 – 변화하는 사회 및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 국가 및 세계 공동체의 범위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
7	생태전환 관련	–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관점, 자연환경과 생태 윤리,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 등의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관한 내용 – 생태계의 특성과 시스템 탐구, 생태 시스템과 인간 사회 시스템의 연관성 탐구 등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에 관한 내용 – 생태전환을 위한 사회 체계의 변화 제안 및 실천, 생태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과학 기술 제안 및 실천, 일상생활에서의 생태전환 참여와 실천 등 생태전환을 위한 참여와 실천에 관한 내용

연번	범주	세부 내용
8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에 관한 내용 – 정보의 공유, 온라인 활동 참여와 협업 등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에 관한 내용 –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표현 등 정보의 처리와 생성에 관한 내용 – 디지털 기술과 정보의 안전한 사용 및 윤리적 사용에 관한 내용
9	일반교양 관련	– 생활 안전, 교통안전, 재난 안전, 직업 안전 등의 안전에 관한 내용 – 동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의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 애국심, 평화, 안보, 독도 교육 및 통일 등의 내용 – 정치, 경제, 금융,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의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 등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 언어, 문학, 예술 등의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2) 심미적 감성을 키우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심미적 감성 역량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이며, 어려운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하는 간단한 시청각적 자료(사진, 포스트, 그림, 동요, 동영상 등)를 통해 고양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교과 역량으로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체험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이에 새 교과서는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적 태도를 갖추며,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해야 한다. 즉, 세계인의 삶과 문화를 표현한 일화, 예술·문학 작품 등을 예시 자료로 제시하여 언어와 문화의 심미적 요소를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 교수·학습 활동

1)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귀납적 접근을 돕는 교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 교육은 지식의 구조에 대한 학생의 주체적인 탐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교과 학문의 원리 및 개념을 구성하고 자신의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하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교육이라고 할 수있다(온정덕, 2021. p.18). 그러나 그동안 단편 지식 암기 및 문제 풀이 위주의 무기력한 지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지적 몰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학생 스

스로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에 탐구 질문을 통한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학습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진하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탐구 질문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탐구 질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탐구 질문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개방성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관점이 요구된다.

고차원적 사고 유도
비교, 추론, 분석, 종합,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부가적 질문 도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질문이 요구된다.

토론 가능성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증능력이 요구된다.

전이 가능성
다른 문제 상황에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계속성
지속적으로 탐구되는 질문으로 삶의 경험과 수준에 따라 답이 달리 나타난다.

(McTighe & Wiggins, 2013을 재구성함.)

그림 3 — 탐구 질문이 갖추어야 할 특성

영어과의 탐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 이야기 글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가?
- 어떻게 하면 이야기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주제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가?
- 담화나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 상대방이 의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를 영어로 소개할 때 매체가 달라지면 효과가 달라질까?
- 소셜 미디어에서는 어떤 글쓰기가 효과적인가?
- ~를 어떻게 전달하면 의미가 정확해지는가?
- 왜 글을 정확히 읽고 자기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
-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따라 새 교과서에서는 위와 같은 탐구 질문을 기반으로 학생이 귀납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과나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때, 귀납적 접근 방식과 연역적 접근 방식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만 학생의 시너지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

다. 그런데 대부분 교실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빠르게 전달해 주기 위해 연역적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통해 이해해야 할 내용을 미리 말하고 학생들은 이 일반화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사례를 조사한다. 학생의 조사는 교사가 제시한 이해를 검증할 뿐이다. 이것은 귀납적 접근 방식과 대조되는데, 학생들이 탐구 질문을 통해 실제 예를 탐구하고, 그들 안에서 찾은 공통점을 종합하여 일반화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일반화를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패턴을 찾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귀납적인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은 자기 생각에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Carla Marschall, Rachel French(2021)는 생각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학생들이 능력 있고 유능한 개념적 사고자임을 믿고 귀납적 접근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되는 사실적 사례를 탐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일반화를 제공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생각을 대신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다는 믿음을 드러내며, 학생들의 생각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귀납적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교과서에서 문법 규칙을 습득하는 활동을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다양한 문장을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한 후, 관찰한 문장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파악하여 문법 규칙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도출된 문법 규칙을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고 실습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서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식의 귀납적 접근 방법은 학생이 문법 규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다루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강조하면서 학습 내용을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로 구성하고, 이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학생이 학습의 결과 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성취기준으로 구현하였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핵심 아이디어는 〈표 2〉와 같다.

표 2 ──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이해	•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관점, 목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활동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표현	•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한다. •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맥락 속에서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됨에 따라, 대부분 교과서에서 단원의 마무리 단계로 프로젝트 활동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단순히 자료를 조사한 후 발표하는 수준이거나 포스터나 UCC 제작 등에 머물렀을 뿐,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즉, 학생 참여형 수업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활동 중심수업으로 인식되었다.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디자인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수업은 학생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중심수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끌어내기보다 단순히 활동들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읽고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면 과연 그것만으로 학생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충분했을까? 학생이 핵심 아이디어를 이해하도록 하려면, 학생이 그린 그림이 어떻게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주제에 관한 중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고차원적 수준의 사고와 탐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하는 법을 익혀 교사와 함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전략을 활용하도록 돕는 교과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이해 영역의 '[9영01-08]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는다.' 표현 영역의 '[9영02-10]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를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전략의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영어 이해 및 표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전략의 종류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교과서에서는 학생이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글의 내용 예측하기, 의미 이해를 위한 비언어적 요소 찾기, 의미 명료화를 위해 되묻기, 바꿔 말하기, 훑어보기, 키워드 찾기, 듣거나 읽은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 짓기, 목적을 가지고 듣거나 읽기,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문맥을 통해 유추하기, 화자나 필자의 숨겨진 의도 파악하기, 고쳐 쓰기 등 언어의 네 가지 기능에 따른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새 교과서에서도 학생이 방송이나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친숙한 주제에 관한 말, 대화 또는 글을 듣거나 읽을 때, '다음에 나올 내용을 추측하며 듣거나 읽기'와 '훑어보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을 지원하는 교과서

최근의 영어 사용 및 수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이해 영역의 '[9영01-08]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는다.'가 있다.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방송,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친숙한 주제에 관한 말, 대화 또는 글을 듣거나 읽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 영역의 '[9영02-09]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말하거나 쓴다.'에서도 학습자가 인용한 내용이나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는 등의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이미지, 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문장이나 문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언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새 교과서에서도 디지털 기반 영어 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다양한 언어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실제적인 영어에 친숙해지고 생동감 있는 언어 사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면 의사소통 장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반 매체 또는 인공지능 번역기 등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의 목적과 학생의 언어 수준에 맞는 디지털 영어 자료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하여 영어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말한다.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각종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도구를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녹음, 학습용 앱, 코퍼스 데이터, 자동 번역, 챗봇, 각종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을 통해 학습 활동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안내해 준다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영어 학습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특성과 성취 단계를 고려한 개별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진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별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 및 다양한 학습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각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자료, 활동, 과제를 선택하게 하는 등 개별화된 수업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맞춤형 평가와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학습 성취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 평가

1) 학습을 위한 평가를 지원하는 교과서

최근 학교의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으로 '학습을 위한 평가'를 통한 학생의 학습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Lorna(2022)에 따르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수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다. 간단히 말하면, 학습을 위한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형성평가로, 판단하는 것에서 학습의 다음 단계에 사용될 수 있는 서술형의 작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학생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영어 교과서가 필요하다.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학습의 과정에서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이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은 영어 학습의 목표와 성공적인 수행 수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할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영어 학습을 성찰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지원하는 교과서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의 메타인지를 계발하고 지원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평가와 학생들의 학습 간 중요한 연결고리로 학생의 역할에 집중한다. 능동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학생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선지식과 연결 짓고, 새로운 학습의 구성에 사용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해한 것을 조정하고 적응하며 심지어 변화시키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능력을 강조한다. 역량을 기르는 학습의 과정은 복잡한 인지 과정이며 태도, 동기, 가치 등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동원된다고 하였다. OECD(2005)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습자는 사고 과정의 주체인 자신을 객관화하여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메타 학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메타 학습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화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메타 학습능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함께 학생에게 길러 주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 된다(온정덕, 2021. p.26). 따라서 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재고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디지털 평가 도구를 지원하는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에듀테크,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AI 등 다양한 디지털 평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디지털 분석·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평가 맥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듯이, 듣기나 읽기 같은 이해 영역 평가 시 디지털 텍스트, 텍스트 난이도, 읽기나 듣기 속도, 어휘·언어 형식 수준 등 학습자 개인의 읽기와 듣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종 보충 자료 및 인공

지능 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학습을 통해 향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기나 쓰기 같은 표현 영역 평가 시 실제적인 의사소통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 음성 녹음, 음성 인식, 챗봇, 화상 회의 등 - 을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의 영어 학습 기록 - 음성 발화, 작문, 과제물, 각종 평가 점수 등 - 을 학습 관리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여 학습 성장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영어 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같은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 축적하여 학습 성장 과정을 지속해서 기록하며, 자기 평가 혹은 상호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으로 2022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기대하는 편찬 방향을 구성과 내용, 교수학습과 평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수·학습 자료로서 구현하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교육에서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에 이르도록 교사와 학생에게 중요한 매개체로서 교과서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온정덕 외(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임찬빈 외(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Lorna M. Earl(2022) 학습과정으로서의 평가. 학지사.

필자 소개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 학생주도의 배움 중심수업,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도전하고 있는 중등 영어교사이다.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